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마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헬레스틴(투스 쫘고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사도 14,21-27	제2독서:	묵시 21,1-5	복음:	요한 13,31-33 13,34-35
가톨릭 성가	입당: 130	봉헌:	441	성체:	179
					파견: 238

### ◆ 화답송



(후렴) 저의 임금 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 하나이다.

- |   |   |
|---|---|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br>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 알렐루야.   |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br>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 “내가 살 길”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말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9. 11일 테러’가 발생했을 때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찾던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날 아침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서로 직장 가느라 바빠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눈을 한번만 더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만 더 안을 수 있다면, 한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죽을 때 못다 이룬 일이 아닌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서로 사랑 하여라.”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다. 이것이 ‘계명’이란다. ‘계명’이라 함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느님께서 그들 앞에 내어 주신 ‘생명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그 길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찾으라 하신다. ‘사랑하는 것이’ ‘살길’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니.

경제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힘만 들뿐 삶이 별반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느님의 계명을 외면한 채 열심히 살길을 찾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같지 않은가?

한 주간 어디서 살길을 찾을까? 무엇으로 가족에게 행복을 주려나? 어디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찾나? 오늘 우리들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자. ♠

**성모 성월 (성모의 노래)**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 미사 봉헌

● **연미사**

민병택 베드로  
이영우, 이태모  
박 라파엘  
김광선  
한성림 요한  
김옥이 마리아  
이미자 안나

복헌

가축  
이상훈 스테파노  
김지원 루시아  
김지원 루시아  
조병모 프란치스코  
애니 박  
김보현 엘리사벳

● **생미사**

바자회 봉사자들  
민 베드로, 민 바울라  
김영숙 가타리나, 김순한 루시아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이재오 클레멘트, 정창동 폴리나  
이진자 세실리아, 김중화 필립보  
표해심 카타리나, 박정자 로사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이중환 토마스아퀴나스  
ME주말부부 참가자들  
이규완 안토니오, 이은경 헬렌  
이상옥 소화데레사

본당

익명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양업회  
박아그네스, 박알버트  
이미숙 안나  
이미숙 안나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대방인쇄 KM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b/t 40&41st)  
212.203.0072(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5월 19일	이은경 헬렌	김호겸 아우구스티노	최진영 수산나	신혜정 소화데레사	이정현 헬레나	안선정 송진영	김지섭 김하나	김은희 김영숙 이지연 백이백 백승훈 이정현 이지훈 김영희
5월 26일	박민재 아그네스	조소연 마르티나	김우현 에제키엘	양정윤 젬마	박시현 마리아	성미나 김 이	한채희 이원지	진문자 김승애 김영숙 이지훈 민완준 민덕미 조리디아 박신희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 **꾸리아**가 바자회로 인해 5월 19일에서 26일로 옮깁니다.

◆ 공 지 사 항

➢ 5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22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오늘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2019년 제21회 바자회 !!

일정 : 오늘,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장소 : Broadway Btn31/32st, Korea Town



<일정> 10:30 개회식  
\*미사 후 31가 Broadway 선상으로 출발.  
선두(국악반) &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 순으로 뒤따름.  
10:50 기도(김성인 미카엘 신부님)  
11:00 본당 바자회 취지와 판매 물품 안내(사회자)  
16:00 경품 추첨 (\*경품은 현장에서 수령가능)

\* 경품 확인 및 수령안내  
www.stfranciskc.org 347-834-5784

\*6월 16일(주일)까지 수령하지 않는 상품은 무효처리 됩니다.

➢ 첫 고백 안내

일시 및 장소 : 6월 매주일 8:40am/ 아래성당 고백소  
대상 : 지난 파스카 성야 때 세례견진을 동시에 받은 분들  
첫 고백은 세례 후 교회의 깊은 관심 속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연결하는 전례입니다.  
대부모님께서서는 신앙의 자녀들이 첫 고백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삶을 내면화시키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의 밤 예식 후 가져가신 꽃바구니를 사무실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5월 '목주기도 봉헌'

-시작 : 오전 9시, 윗 성당

날짜	주관단체	목주 기도
오늘	꾸리아	고통의 신비
26일	성령기도회 & 양업회	영광의 신비

☆방법 : 목주의 기도 3단까지 봉헌한 후 성모성월기도로 마칩니다. 나머지 2단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 '처음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2019년 성지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파티마, 프랑스 루르드(3개국)"

일시 : 2019년 9월9일(월) - 9월19일(목)(10박 11일)  
순례지 : 마드리드-톨레도-아빌라-알바 데 토르메스-살라망카-파티마-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레온-로올라-루르드-사라고사-몬세라트-바르셀로나

인솔사제 : 김성인 미카엘  
참가경비 : \$ 2,900 예약금 \$500

➢ 문화복지 NGO 이노비 후원 행사

EnoB BENEFIT Night Spring 2019  
날짜 : 5/24(금) 리셉션: 6:30pm 클래식콘서트: 7:30pm  
장소 : Saint Peter's Church, 619 Lexington Ave(at 54St), New York, NY 10022  
티켓 : 1장\$100/2장\$150 becon.eventbrite.com / 성당 교우분께 한해 선착순 6분 무료 티켓 제공  
문의 : 이노비 김재연 사무총장 (917-822-4346) / enobinc@gmail.com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3,250
감사헌금	\$ 100
합 계	\$ 3,350

❖ 교무금 :

홍봉운 마봉한 이희철 박정호 김인숙 린다김  
김민정 한시찬 이기원 신윤길 이병국 김영희  
안영옥 함동우 손유경 박기목 황경숙 이남석  
김승한 양미숙 김종화 백승훈 김영빈

❖ 감사 헌금 :  
백승훈

## “성경 맛들이기” - 여호수아기

### 여호수아기는

구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역사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던 하느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다.

눈의 아들로, '여호수아'의 뜻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이다. 여호수아는 짧게는 '예수', 또는 '요수아'라고도 부르는데, 그리스어로는 '예수스'가 된다. 또 '호세아'라는 이름도 여호수아의 변형이다.

모세와 함께 활동했으며, 칼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였다. 모세 다음으로 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다 분배한 뒤 삶을 마쳤다.

### '여호수아기'의 성경 이름

가나안 땅의 정복, 분할 기록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서 모두 이 인물의 이름을 책의 명칭으로 삼았다.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 약속된 땅이 마침내 여호수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까지를 '모세육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여호수아기'의 저자

알 수 없다. 다만, 가나안 땅 점령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뚜렷한 사관 아래 정리한 사람을 흔히 '신명기계 역사가'라고 부른다. 그는 야훼 하느님과과의 계약에 충실하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강조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유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고자 노력한 선각자라 볼 수 있다.

### '여호수아기'의 집필 목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늘 갈망해 왔다. 그 중에서 자손 번성은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름으로써 성취되었다(탈출 1,1-7). 여호수아기는 그 다음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리코 성을 침공할 때부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까지 하느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전투하게 되면 언제나 승리를 거두게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여호수아기는 하느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며 변함이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인간의 충실 여부에 따라 그 약속의 실현이 늦추어질 수도 있고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에 따라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 '여호수아기'의 집필 연대

이야기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가나안 정복 시기는 대략 기원전 13세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덧붙여지고 마침내 기록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다. 아마도 기원전 7-6세기경부터 정리되어 바빌론 유배 이후(기원전 4-5세기경) 최종 편찬되었다고 본다.

### <참고> 12지파

12지파 동맹 체제란, 왕정 도입 이전에 이스라엘을 결성하였던 동맹 체제를 말한다. 여호수아기는 이 열둘을 하나로 연결시켰던 것이 스킴을 중심으로 한 야훼 예배였음을 알려 준다(여호 24장).

원래 야곱의 열두 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12지파의 이름과 목록은 각 성경 본문마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12'라는 숫자만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서로 다른 12지파의 목록과 순서는 편집자의 의도적 수정에 의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 다른 전통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구약 성경의 오랜 전승 체제에서는 요셉과 레위가 등장하지만(창세 49장), 민수기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나쎄와 에프라임이 등장한다(민수 1,5-15 ; 1,20-43 ; 2,3-29 ; 7,12-83 ; 13,4-15 ; 26,5-50 ; 34,19-28. 마지막 구절에는 요르단 동쪽의 르우벤과 가드도 빠져 있음). 창세기와 탈출기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레위 지파가 민수기에서 빠진 것은 레위 지파가 땅을 상속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명기 33장 1-29에서는 시메온의 이름이 빠지고 다시 레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문헌이 작성될 무렵 시메온 지파가 사라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